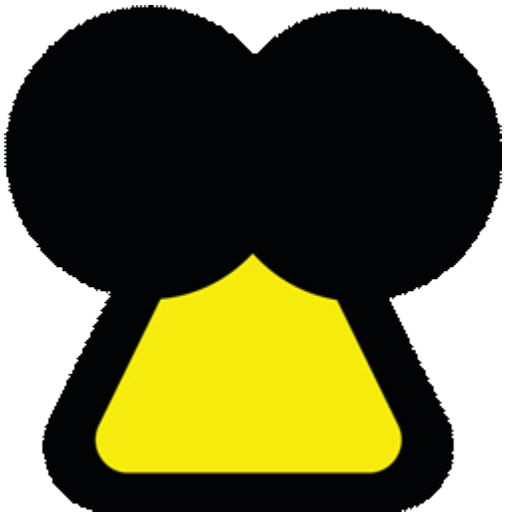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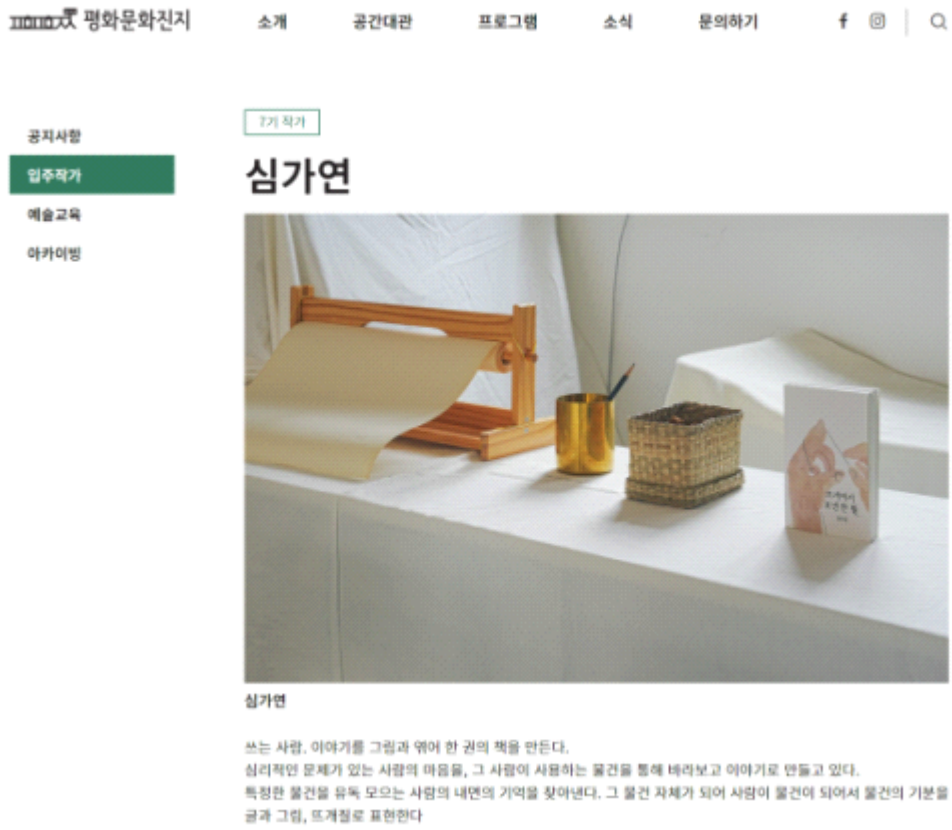


심가연 포트폴리오

2024년 도봉문화재단 / 입주작가 7기 심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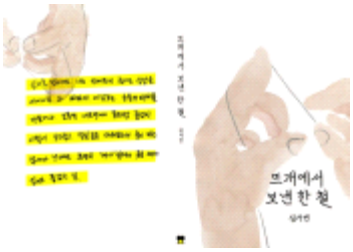
2023년 8월 성북문화재단 / 길음역 공업사
‘뜨개질에서 보낸 한 철’ 책 전시 (개인전)
전시영상 https://www.instagram.com/reel/CwJKg0ghyKB/

전시 포스터 인스타 홍보 포스터

공업사 외부 전경

전시 스케치

뜨개에서 보낸 한 철 전시에서 발표한 에세이집 일부내용



이 책을 쓴 이유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 나는 2013년 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글 쓰면서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했다. 광고 카피라이터, 독서논술 강사, 취재기자, 사보 기자, 공연기획사 스탭. 게다가 일대일 글쓰기 문학 과외로 지식창업지원금을 받으면 창업센터에 입주하기까지 했다.

창업센터 지원금이 만료되는 2015년 3월쯤 내 마음 속에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글쓰기 과외로 5명 남짓한 사람들과 과외를 하고 있었지만 불규칙한 생활패턴, 불규칙한 외주 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었다. 정규직이 아닌 회사 사원증이 없는 삶에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였다.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새벽까지 글을 쓰다가 대낮까지 잠을 자면 그렇게 열패감이 들었다.

그 망한 캐릭터 같은 감정으로 잠에서 깨어나 이불에 그려진 장미꽃 패턴을 보면, 어느 날은 그게 벌 같았다가 어느 날은 그게 또 다른 형상으로 보이기도 했다.

내가 나로 서 있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아주 작은 문제들이 닥쳐도 내가 기대고 있던 사람들을 탓했다. 사실은 내 탓이거나 내가 해결 해야 하는 일이거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일 뿐인데도 그런 문제들을 어른스럽게 직면하는 일을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제대로 겪게 된 셈이었다. 그렇게 투덜대면서 두 아이를 키웠다. 어느 날 돌리보니 아무도 더 이상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았다.

성취감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다운지 생각하며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살기 위해서 매일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감정들을 블로그에 적었고,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면 털실을 꺼내서 목표 했던 뜨개 도안을 이리저리 독학하며 하나씩 완성했다.

하나의 글을 매듭짓는 일.

필요했던 털모자를 사지 않고 스스로 떠서 쓰고 다니는 일은 그 당시 유일하게 내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던 일이었다.

하지만 뜨개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다보니, 그것도 병이 들었다. 저장장애가 온 것이다. 여름철이면 스웨터 공장에서 제조하고 남은 혼사들이 털이로 중고나라와 동대문 종합상가에 쏟아졌다. 브랜드 털실이 아닌 1킬로에 만원도 안 되는 털실 덩어리들을 싸다는 이유로 야금야금 사모았다. 그렇게 집안에 털실 덩어리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야근하고, 혼자 아이들을 일주일 내내 집에 갇혀서 보던 무더운 여름철, 유일하게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문에 혼사 박스 선물을 두고 가시니. 그런 달콤한 위안을 포기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그 혼사를 한 가득 가슴에 안을 때, 그 혼사 실타래로 감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돌 때마다 행복했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유일하게 털실이라는 사물이 나를 위로했다. 실은 무엇이든 뜰

수 있는 내 상상력의 샘이었다. 어디에도 풀 수 없는 그 창작욕을 풀며, 수없이 떠내려간 뜨개 작품들은 이제 우리 집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더 실력이 좋아질수록 과거의 뜨개 작품들이 서툴게 보였고, 무겁고 짐스러웠기 때문에 처분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그 때 그 작품들을 추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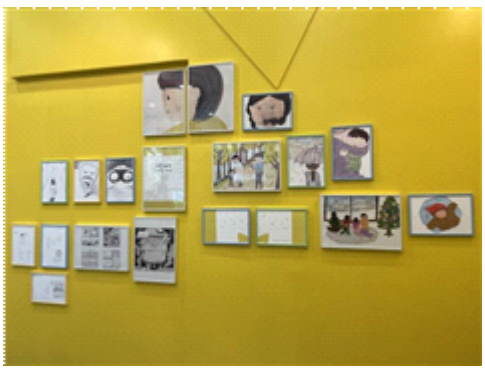
그토록 사들였던 털실들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만 이제는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정신병원 같이었다고. 그 실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미칠 듯이 외롭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 속에서 두 아이를 길러내는 순간, 그 암흑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

그 무시무시했던 지옥의 한 철을 털실과 잘 넘겼다. 물건을 모아야만 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창고와 방을 전부 털실로 채웠던 것을 다시 하나 하나 박스에 담아 중고나라에 팔았다. 그러나 2023년 8월에 예정된 뜨개에서 보낸 한 철 책과 뜨개워크숍 전시를 위해 다시 집안이 혼사로 채워졌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저장장애라는 심리적 문제와 늘 싸우며 내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고, 수납하

는 고행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느낀 털실과 저장장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를 함께 나누고 싶어 책을 만들었다.

2023.11 돌리뮤지엄 호호호전 도서원화전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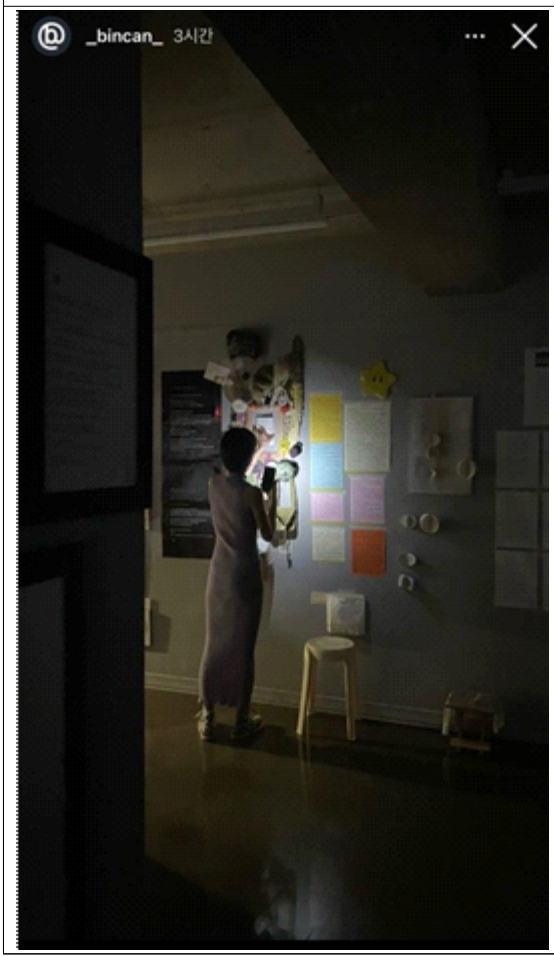
마음그림극장 총 5편의 그림책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음그림극장(그림책을 영상작업하여 올려두었습니다.)

1. *엄마놀이 https://youtu.be/D8pnB-kk7t4?si=i1kFXoPouDPlcfD-*
2. *다 숨었으니까 찾아주세요. https://youtu.be/7uGzdyCEJI8?si=OXI8s0KtQbm3WhTU*
3. *따라 따라 따로 따로 https://youtu.be/e6RcL0PjHJ4?si=2aDhbqPW7IT4mN-z*
4. *어린왕자의 상자 https://youtu.be/PtZXvKqSn7w?si=wj2UaNfbNoiFGZmX*
5. *왕따의 편지 https://youtu.be/j493TlTx8YM?si=BI8RG93oa93ox4JP*

-->왕따의 편지 내용 중 일부

2023.9.4-24 빈칸 @bincan 압구정 글 단체전 암실 - 뜨개에서 보낸 한 철 전시 참여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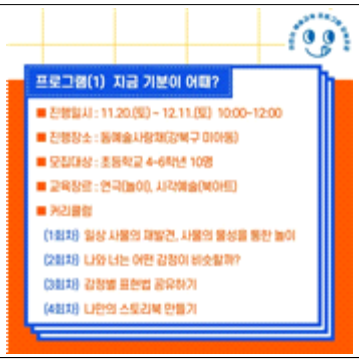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 양성과정 인터뷰 영상

2021년 9월 1일~11월 11일 24시수

강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gae모임>'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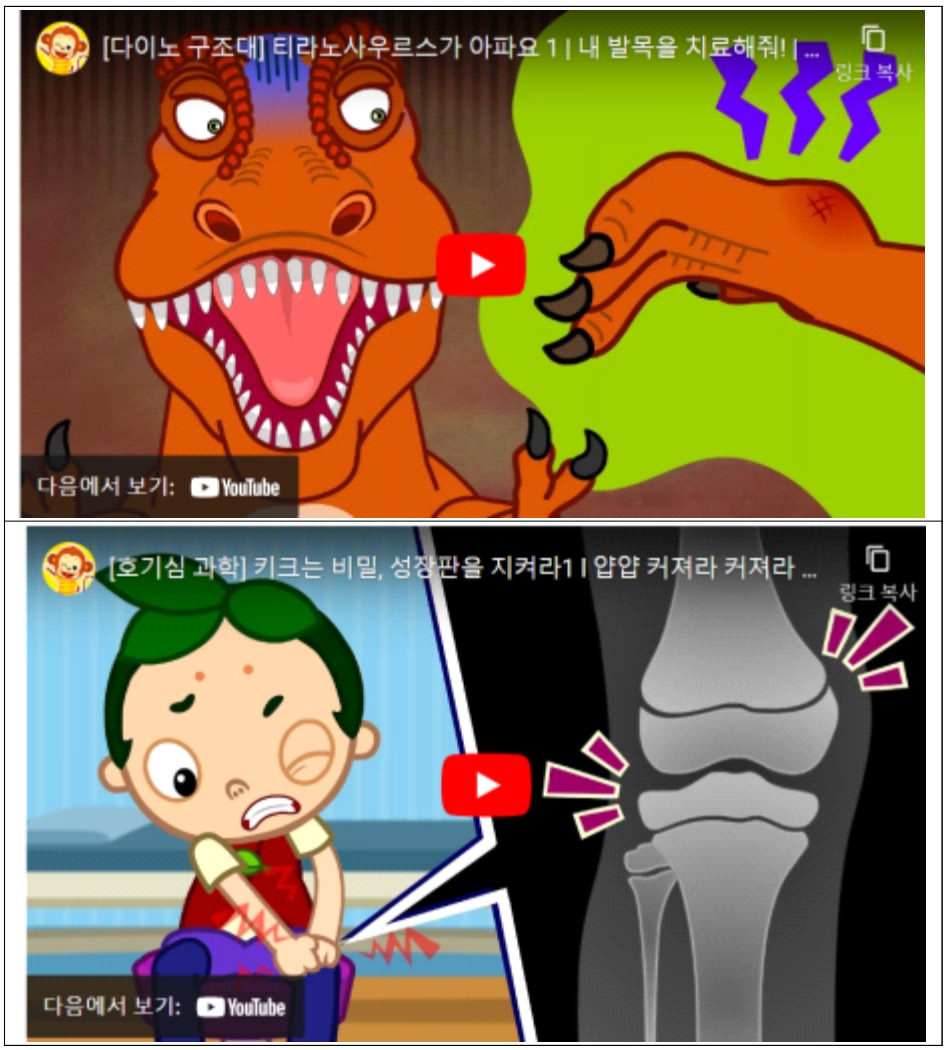
교육 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업한 영상스케치가 있습니다.



https://youtu.be/WHcb3aaZZTo 4분6초부터

2022-2023 지니키즈 ㈜브릭슨 외주 -지니키즈 유투브 애니메이션 2분 30초 영상대본

-----> 성장판 1편 https://youtu.be/WS6gSimDH2g?feature=shared
2편 https://youtu.be/MM1bXdQ8g7Y?si=nDCEATapVcw5vTPF
티라노사우루스가 아파요 1편 https://youtu.be/4J3JmB8EBxE?si=fmTfUnS8cpPfcRR9
2편 https://youtu.be/EZXkjC0axHI?si=EEvzn9veB-t3i9PP



강북구 소재 독서교실 강사 2016-2024년

[프로그램명 : 글쓰기 공모전 해봤니? 우리 집 책을 소개합니다. 도캉스하자! 영웅찾기]

<table>
<tr>
<td>
미아정보문화도서관</td>
<td>2024년 진행 중인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초등 중학년 독서동아리 수업 포스터입니다.
 </td>
</tr>
<tr>
<td>
강북문화정보도서관</td>
<td>
비대면 삼각산어린이도서관</td>
</tr>
<tr>
<td>
그림책 수업 - 그림책방 돌멩이수프</td>
<td>
그림책 수업 - 그림책방 돌멩이수프</td>
</tr>
</table>